

## 한·중 도시 간 여성 스트리트 패션 색채 비교 분석 -2015 S/S 베이징, 다롄, 칭다오, 난징, 서울을 중심으로-

\*백정현 · \*오현아 · \*\*배수정<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A Comparative Analysis of Clothing Color of Women's Street Fash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Seoul, Beijing, Dalian, Qingdao and Nanjing on 2015 S/S-

\*Jeonghyun Baek · \*HyunA Oh · \*\*SooJeong Ba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specific data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preference on Women's street fashion within China and Korea. Photos of Women's street fashion from the twenties and thirties were taken in person in four cities in China(Beijing, Dalian, Qingdao and Nanjing) and Seoul from July 2nd to August 10th, 2015. Three hundred photos in each city were selected, making a total of 1,500 photos. In the analysis of the colors of the clothing in these five cities, the uses of the multi color was most frequent in Dalian, while those of Black was most prevalent in Beijing, Qingdao, Nanjing and Seoul. The Black proved to be commonly preferred through all the items, regardless of terms of the nationality, areas and seasonal changes. The high incidence of Purple Blue color in Beijing, Dalian and Qingdao might be attributed to their preference of the blue jeans. The Multi color was highly shown in all the cities which might be due to their preference of compound colors rather than the mono ones. The high preference for the chromatic colors such as Red, Yellow Red and Yellow might be ascribed to the Chinese traditional color preferences. The differences lies in the color tones, such as the dark and light grayish tone emphasized in Seoul and Nanjing, and vivid and strong tones in Beijing, Dalian and Qingdao. Seoul shows a liking for the achromatic colors, preferring dark and grayish tones, compared with four cities in China, only Nanjing has a similar trend to Seoul.

<sup>†</sup>Corresponding author: Soojeong Bae, Tel. +82-62-530-1344, Fax.+82-62-530-1349  
E-mail: sjbae@chonnam.ac.kr

This study analyzes geographical preferences in China that possibly contribute to the launching of Korean fashion brands in view of the design and marketing as a useful basic resources.

**Keywords** : street fashion(스트리트 패션), Chinese fashion market(중국 패션 시장), clothing colors(의복색), color trend(컬러 트렌드)

## 1. 서론

현재 중국 의류시장의 전체적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는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amsung Design Net [SDN], 2015). 특히 China National Commercial Information Centre(CNCIC)에 따르면 여성복 시장의 성장률은 여전히 전체 의류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며 중국 전체 의류시장의 매출과 판매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SDN, 2015)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국 여성들의 피부 톤과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한국과 일본 브랜드의 인기도 증가세에 있어 중국 여성복 시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SDN, 2015).

특히 중국은 각 지역마다 문화, 언어, 사고방식의 차이가 커 지역별로 소비구조나 성향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 공략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소비성향에 맞는 디자인, 색상, 가격 등을 고려하는 맞춤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중국 패션 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지역 간의 분명한 선호도 차이는 이미 제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부나 취향을 반영하는 제품일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DN, 2012).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들도 중국의 지역별 패션시장의 환경과 특성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방식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색상은 중국 여성 소비자들이 의류 소비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7). 특히 색채는 패션을 비롯한 모든 디자인 작업에 있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요소로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역별 컬러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중국 패션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网)가 중국의 지역별 소비성향과 특징을 분석한 '2011 온라인 소비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구 500만명 이상이며 소비 수준이 높은 중국 대도시 거주 여성들은 소득수준이 높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유행에 민감하다고 보고하고 있다(SDN, 2012).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규모 도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중국 여성 패션의 지역별 선호도에 대한 조사·분석은 우리 패션 브랜드가 중국 진출 시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 내 패션의 변화추이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길순(Park, 2004)은 스트리트 패션을 통해 한류현상을 분석한 바 있으며 유정민·이인성(Yoo & Lee, 2014)은 원피스 디자인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지역별 패션의 컬러 분석으로는 오현아·배수정(Oh & Bae, 2013; Oh & Bae & Kim, 2012), 정지원·배수정(Jung & Bae, 2014), 배수정(Bae, 2011)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그 지역과 시기, 계절에 따른 패션 아이템에 차이가 있어 중국의 여러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그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Seoul)과 경제와 패션의 중심지인 중국 대도시 및 중·소규모 도시 중 베이징(Beijing), 다롄(Dalian), 칭다오(Qingdao), 난징(Nanjing)의 여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내 또는 양국 간 패션 색채 선호의 특성을 밝히고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및 서적, 문헌과 국내·외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및 연구보고서,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과 기타 패션전문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서울과 중국 4개 도시에서 스트리트 패션을 직접 촬영하여 진행하였다.

촬영 대상은 한국과 중국의 20-30대 여성이며 이중 특히 현재 중국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빠링허우(八零后·80后)와 지우링허우(九零后·90后)는 미래의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할 막대한 잠재 가치를 가진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며 정체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DN, 2013). 세계적인 경영컨설팅회사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이 발표한 '2013년 중국 소비자 자신감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는 많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18-34세 젊은 소비자들은 경제 성장을 둔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소비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SDN, 2013). 이처럼 빠링허우와 지우링허우는 자신들의 기호와 감성을 반영한 '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으며(Econovill Review, 2016), 감성적인 고려사항들을 구매결정의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세가 낮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개성 표현이 가능한 브랜드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DN, 2013). 더욱이 이들이 지난해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이며 2020년에는 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성복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Econovill Review, 2016). 때문에 한국과 중국 여성복 시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여성의 패션 컬러 선호에 대한 조사는 기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중국 대도시의 패션시장은 경제성장 둔화, 브랜드 경쟁 심화, 소비자 성숙 등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2011), 이에 따라 많은 의류 브랜드들의 목표 시장이 중·소규모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SDN, 2015). 특히 일부 중·소규모 도시가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하면서 일부 도시의 1인당 GDP는 대규모 도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규모 도시가 중국 중급 소득수준 소비자의 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ERI, 2011). 중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Louis Vitton)도 이러한 중·소규모 도시의 성장가치를 인식하여 1998년부터 중급 도시로의 매장 확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2005년 이후에는 중·소규모 도시로의 매장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SERI, 2011).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패션 기업이나 후발 진출예정인 업체들도 이미 포화상태인 대규모 도시의 경쟁을 피해 중·소규모 도시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 클럽'에 속해있는 경제 중심지 중에서(Trade Korea, 2016) 한국과 비교적 근거리에서 시장 진출에 용이하고 수도권 베이징과 더불어 향후 주요 패션도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도시 3개 포함 총 4개의 중국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Fig. 1). 촬영 지역은 한국의 수도권 서울과 중국의 4개 도시를 포함한 총 5개 도시로, 베이징과 한국은 각각 중국과 한국의 수도로 국가소비증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심도시이다. 다롄은 동북 3성에서 시장규모가 크고 구매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의류산업이 도시중점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중국 패션시장에 진출한 외국 패션 브랜드들에게 이미 중요한 도시로 부상되고 있으며(Cho, 2003), 칭다오는 2013년도에 이어 '2015 제5회 중국 국제패션위크'와 '칭다오 명품브랜드전'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최근 새롭게 패션도시로 인식

되고 있는 도시이다(Kim, 2015). 난징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에서 6번째로 SPA 브랜드 신규 매장이 많이 개설된 도시이며 SPA 브랜드 전체 매장 순위에서도 상위를 차지해 장쑤성(江蘇省)의 대표적 패션도시로 각광받고 있다(Gang, 2015).

더불어 서울 강남역은 1일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역이자 서울시가 조사한 ‘보행량 Top10 지점’에서도 두 번째로 나타났고(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0), 최근 가로수길과 더불어 20-30대 여성들의 유동량이 많은 지역이기에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5년 7월 2일-8월 10일에 걸쳐 서울, 베이징, 다롄, 칭다오, 난징에서 20-30대 여성의 스트리트

패션을 직접 촬영한 후 판독이 용이한 사진 자료를 각 도시별로 300장씩 총 1500장을 선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후 본 연구자를 포함한 5인의 패션 전문가가 판독에 참가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패션 아이템은 S/S 시즌을 기준으로 착용되는 여성복 아이템인 원피스, 상의(슬리브리스 탑, 티셔츠, 블라우스/셔츠, 재킷, 카디건), 하의(스커트, 팬츠), 액세서리(가방, 신발)로 분류하였으며, 겹쳐 입는 상의의 경우 판독이 용이하도록 겹에 착용한 아이템을 기준으로 하였다.

색채 분석에 있어서 유채색은 한국표준규격(KS)에



Figure 1. Seoul, Beijing, Dalian, Qingdao and Nanjing  
-<https://search.naver.com>

Table 1. Korea & China Street Fashion Spots

City	Seoul	Beijing	Dalian	Qingdao	Nanjing
Shooting Period	2015.7.2-7.10	2015.7.2-7.5	2015.7.6-7.8	2015.7.10-12	2015.8.7-8.10
Average Temperature	26℃-29℃	27℃-31℃	24℃-32℃	23℃-28℃	26℃-30℃
Shooting Spots	-Garosugil -Gangnam subway station	-Wangfujing street -Xidan street	-Shengli Square -Mycal department store	-Daedong street -Hisense plaza	-Xinjiekou square

따라 기본색인 R(빨강), YR(주황), Y(노랑), GY(연두), G(초록), BG(청록), B(파랑), PB(남색), P(보라), RP(자주)의 10색으로, 유채색 톤은 V(Vivid), S(Strong), B(Bright), P(Pale), Vp(Very Pale), Lgr(Light Grayish), L(Light), Gr(Grayish), Dl(Dull), Dp(Deep), Dk(Dark)의 11톤으로, 무채색은 White(흰색), Gray(회색), Black(검정색)으로 나누었다. 분석 시 한 아이템에서 컬러의 복합사용에 의해 문양이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컬러가 섞여 있는 상태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선행연구의 분류에 따라 Mit(복합 컬러)로 분류하였다(Kim & Bae, 2011).

### III. 한중 도시 간 색채 비교 분석

#### 1. 서울

2015년 여름 시즌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는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66.4%, 유채색이 33.6%의 빈도를 보여 난징 다음으로 무채색의 빈도가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Bk이 36.2%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고, Wt 19.2%, Gry 11.0%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무채색이 강세를 보였다. 유채색은 Mit가 10.9%로 가장 높았으며(Fig. 3), PB(7.2%)> YR(4.6%)> R(3.4%)의 순이어서 중국의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컬러 톤은 Dk(5.5%)> Vp(4.0%)> Lgr(3.3%)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의 도시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 2). 컬러 코디네이션은 유채색 vs 무채색의 코디네이션(45.3%)> 무채색 vs 무채색(26.7%)> 유채색 vs 유채색(11%)의 순이었다(Fig. 5). 이처럼 서울은 전체적으로 난징을 제외한 중국의 도시들에 비해 Bk(36.2%)과 무채색 vs 무채색(26.7%)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톤 분석에서도 Dk톤이나 Lgr톤처럼 어둡거나 차분한 톤이나 Vp톤처럼 연하고 깨끗한 톤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러한 결과는 V톤이나 S톤이 강세를 보였던 중국의 도시와는 대조적이며, 특히 본 조사가 여름에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들의 Bk과 어두운 톤에 대한 선호가 매우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2012 S/S, 2014 S/S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한국여성의 Bk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인 특성임을 보여준다(Jung & Ba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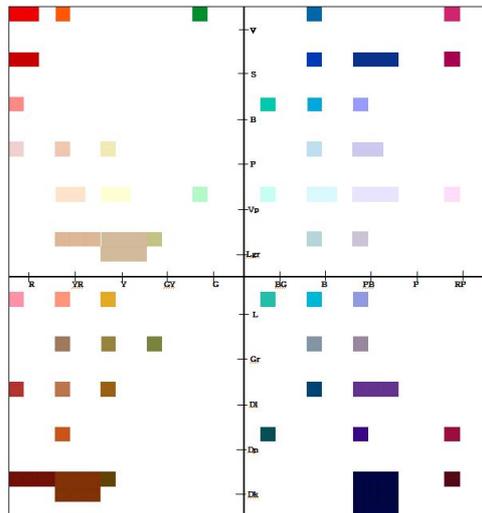


Figure 2. Frequency of Hue and Tone of Street Fashion in 2015 S/S Seoul (%)



Figure 3. Multi Color One-piece Dress



Figure 4. Dk Tone T-shirt



Figure 5. Chromatic Color vs Achromatic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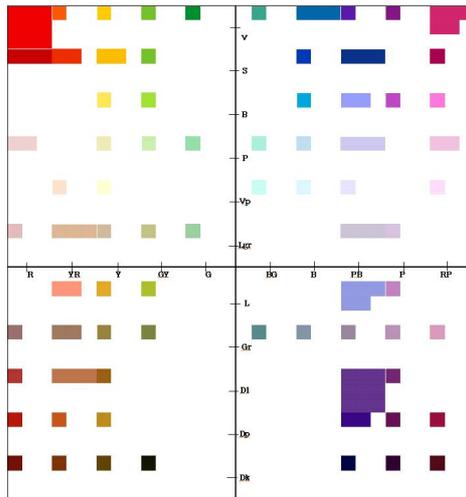


Figure 6. Frequency of Hue and Tone of Street Fashion in 2015 S/S Beijing (%)

## 2. 베이징

2015년 여름 시즌 베이징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는 유채색이 53.6%, 무채색이 46.4%로 유채색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Bk이 22.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Mt(20.7%)> Wt(17.8)> PB(9.3%)> R(7.5%)의 순으로 높은 빈도

를 나타냈다(Fig. 6, 7). 톤은 V(6.9%)> DI(5.1%)> S(3.4%) 순으로 분석되었다(Fig. 8). 유채색 중 Mt와 PB의 빈도가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컬러가 배색된 경우와 PB로 분류된 데님의 착용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R과 YR에 대한 빈도도 다른 컬러에 비해 높아 붉은색을 비롯한 난색에 대한 선호도 함께 보이며, 톤에서도 V톤이나 S톤처럼



Figure 7. Multi Color One-piece Dress



Figure 8. V Tone One-piece Dress



Figure 9. Chromatic Color vs Achromatic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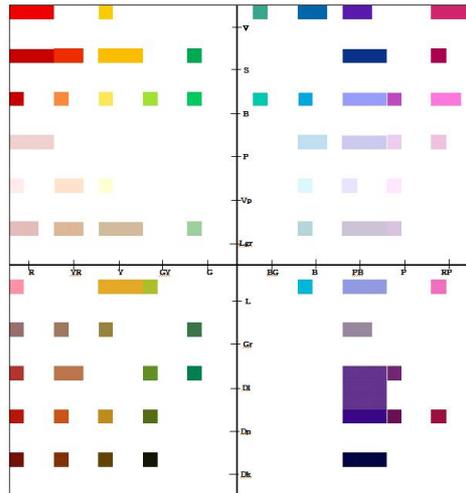


Figure 10. Frequency of Hue and Tone of Street Fashion in 2015 S/S Dalian (%)

강렬한 컬러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징의 여름 패션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중국 특유의 R 계열 컬러에 대한 선호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Jung & Bae, 2014). 컬러 코디네이션에서는 유채색 vs 무채색 코디네이션 43.7% > 유채색 vs 유채색 20% > 무채색 vs 무채색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9).

### 3. 다렌

2015년 여름 시즌 다렌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는 유채색이 54.7%, 무채색이 45.3%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Mit가 24.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Bk이 22%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다른 4개 지역에서는 Bk이 가장 빈도가 높았던 반면 다렌은 Mit가 가장 높아 특이점을 보였으며, 유채색에서는

PB(11.3%)> R(5.5%)> YR(3.6%)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Fig. 10, 11). 톤에서는 V(4.5%)> D(3.4%)> S(3.3%)의 빈도순으로 나타나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V톤이 강세를 보이거나 D톤이 S톤과 비슷한 빈도를 보여 차이점을 나타냈다(Fig. 12). 컬러 코디네이션은 유채색 vs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이 45.3%> 유채색 vs 유채색 19.3%> 무채색 vs 무채색 10.7%의 순으로 나타나 베이징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3).

#### 4. 칭다오

2015년 여름 시즌 칭다오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는 전체 컬러 중 유채색이 50.3%, 무채색이 49.7%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Blk으로 22.2%였으며 다음은 Wt로 20.0%였다(Fig. 15). 이어 Mlt(17%)> PB(13%)> Gry(7%)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YR(6%)과 R(4.8%)도 다른 컬러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여 베이징, 다렌과 마찬가지로 PB



Figure 11. PB One-piece Dress



Figure 12. V Tone One-piece Dress



Figure 13. Chromatic Color vs Achromatic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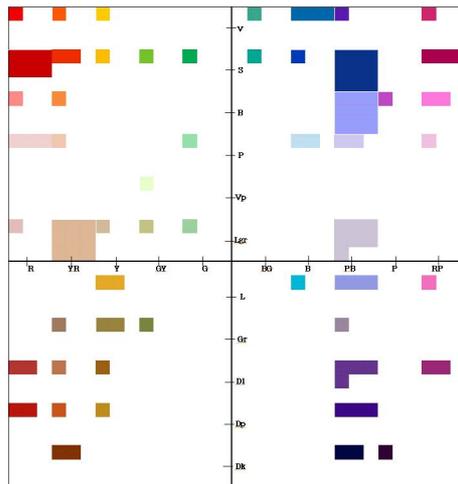


Figure 14. Frequency of Hue and Tone of Street Fashion in 2015 S/S Qingdao (%)

와 난색계열에 대한 선호는 칭다오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Fig. 14). 유채색 톤에서는 S(7.5%)> Lgr(6.5%)> B(4.5%)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순위 안에 들지 않았던 B톤의 빈도가 높은 특이점을 보였다(Fig. 16). 컬러 코디네이션은 유채색 vs 무채색의 코디네이션(47.7%)> 유채색 vs 유채색(22.0%)> 무채색 vs 무채색(13.3%)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17).

### 5. 난징

2015년 여름 시즌 난징의 스트리트 패션 컬러는 전체적으로 무채색 빈도가 66.7%로 5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유채색 빈도는 3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Bk이 36.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Wt(22.8%)> Mlt(14.2%)> Gry(7%) 순으로 무채색과 Mlt가 강세



Figure 15. Wh T-shirts & Wh Short Pants



Figure 16. S Tone One-piece 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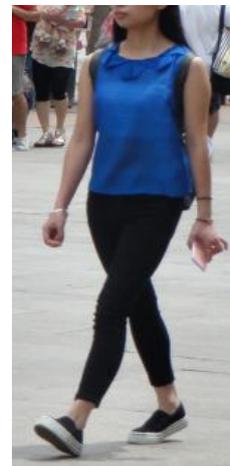


Figure 17. Chromatic Color vs Achromatic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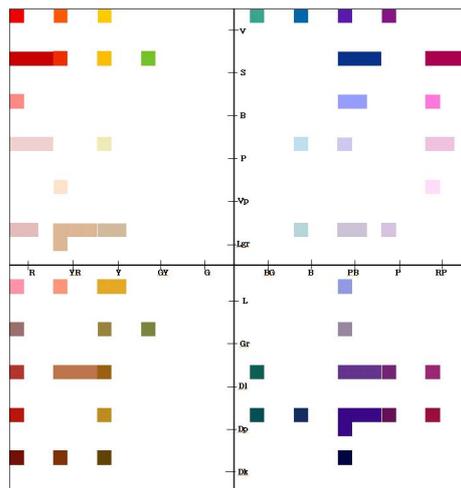


Figure 18. Frequency of Hue and Tone of Street Fashion in 2015 S/S Nanjing (%)



Figure 19. Wh One-piece Dress



Figure 20. Lgr Tone Skirt



Figure 21. Chromatic Color vs Achromatic Color

를 보였다(Fig. 19). 이밖의 유채색으로는 PB(5.1%)> R(4.1%)> YR(3.1%)로 순의 빈도로 나타나 다른 중국 도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Fig. 18). 하지만 유채색 톤에서는 Lgr(3.3%)> S(2.9%)> M(2.8%)로 흐리고 탁한 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칭다오와는 유사하나 V톤이나 S톤 등 원색에 가까운 선명한 톤이 강세를 보였던 베이징, 다롄과는 차이점을 보였다(Fig. 20). 유무채색 코디네이션은 유채색 vs 무채색의 코디네이션이 42.3%, 유채색 vs 유채색과 무채색 vs 무채색이 각각 16.7%로 동일한 빈도를 보였다(Fig. 21).

이를 종합한 결과, 전체적으로 베이징, 다롄, 칭다오는 유채색에 대한 빈도가 높고, 서울과 난징은 무채색에 대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컬러에서 분석에서 다롄은 Mit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4개 도시는 모두 Bk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과 난징은 Bk, Wt, Mlt, Gry가 빈도가 높은 주요 컬러로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베이징, 다롄, 칭다오는 Bk, Mlt와 함께 PB가 높은 빈도를 보여 데님을 포함하여 여름에 적합한 시원해 보이는 의상의 컬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의 유채색 톤에서는 중국의 4개 도시 모두 R, YR, Y에 대한 빈도가 다른 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국 특유의 난색 계열에 대한 선

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컬러 톤에서는 중국의 4개 도시는 대체로 V톤이나 S톤이 강세를 보인 반면 서울은 여름임에도 Bk을 비롯한 무채색의 빈도가 현저히 높고 Dk톤과 Lgr톤 같은 어둡거나 흐린 톤에 대한 빈도가 높아 한국과 중국 여성의 컬러와 톤 선호에 차이를 보였다.

#### IV. 의복 아이템별 색채 비교 분석

##### 1. 원피스

의복 아이템별 색채 분석 중 원피스 컬러는 서울(41.9%), 베이징(44.2%), 다롄(57.8%), 칭다오(17.8%)는 Mit가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난징은 Bk이 20.9%이고 Mit가 15.8%의 빈도로 나타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 22). 이처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Mit가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컬러나 패턴이 있는 원피스를 선호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의 여름 패션에서 복합컬러나 패턴이 있는 원피스가 매우 중요한 패션 아이템임을 짐작케 한다(Jung & Bae,

2014). 유채색에서는 다롄, 칭다오, 난징, 서울은 PB와 B처럼 시원해 보이는 한색 계열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베이징은 S/S 시즌임에도 강렬하고 화려해 보이는 R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다른 중국 도시에 비해서도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컬러 톤에서는 베이징은 V(8.3%), 다롄은 B(4.4%), 칭다오는 S(6%) 등 전체적으로 강렬하고 밝은 톤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난징은 DI=Dk(6%), 서울은 Lgr(4.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어둡거나 흐린 톤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23). 더불어 이는 난징(20.9%)과 서울(27.4%)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Bk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 2. 상의

의복 아이템별 색채 분석 중 상의 컬러에서는 칭다오만 Mit(30%)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베이징(34.2%), 다롄(35.4%), 난징(42.3%), 서울(32.9)은 모두 Wt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시원해 보이는 상의를 선호하는 계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서울은 Bk(20.9%)> Mit(14.9%) 베이징은 Mit(23.5%)> Bk(13.2%), 다롄은 Mit(33.2%)> Bk(11.9), 칭다오는 Wt(29.6)>Bk

(10.6%), 난징은 Bk(20.9%)> Mit(14.9%)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Fig. 24). 따라서 대부분 Bk, Mit, Wt가 2015 S/S 시즌의 상의에 선호되는 색상 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컬러 톤에서는 서울 Vp(6%), 베이징 V(7.7%), 다롄 V(3.8%), 칭다오 Lgr(3.6%), 난징 V(15.4%)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 서울만 Vp톤이 높게 나타난 것은 원피스 컬러 톤에서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Fig. 25).

## 3. 하의

의복 아이템별 색채 분석 중 하의 컬러로는 베이징(32.2%), 다롄(37.6%), 칭다오(39.5%)는 PB가, 난징(57%)과 서울(39.1%)은 Bk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계절과 관계없이 데님과 Bk 하의를 선호하는 한국과 중국 여성의 패션 선호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Fig. 26). 특히 서울과 난징에서 Bk의 빈도가 높은 것은 전체 컬러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무채색 톤에 대한 높은 선호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였으며, 상의보다는 하의에서 더욱 날씬해 보이며 안정적인 컬러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어두운 컬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컬러 톤에서는 서울 Dk(9%), 베이징 Gry=Dp(1.4%), 다롄 Lgr(8.2%), 칭다오 S(12.6%), 난징 P(2.4%)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서울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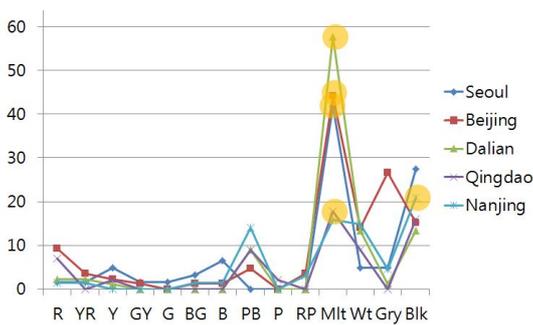


Figure 22. Local Color Change in One-piece 2015 S/S Korea & Chin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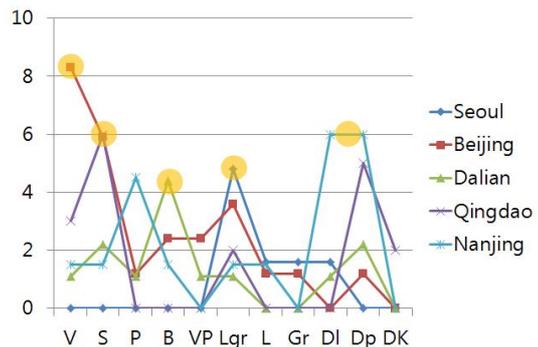


Figure 23. Local Tone Change in One-piece 2015 S/S Korea & Chin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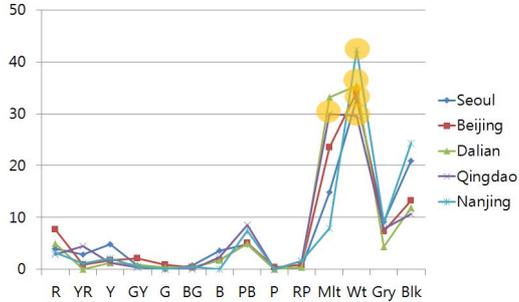


Figure 24. Local Color Change in Top Items 2015 S/S China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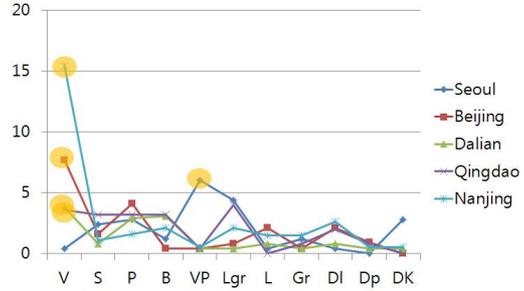


Figure 25. Local Tone Change in Top Items 2015 S/S Korea & Chin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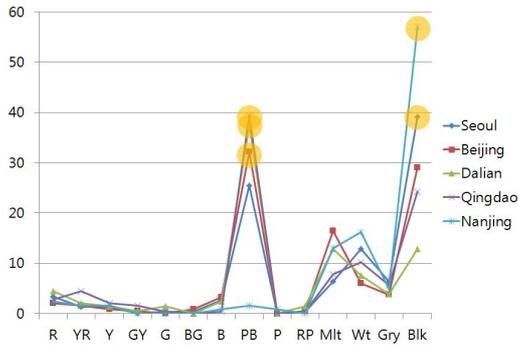


Figure 26. Local Color Change in Bottom Items 2015 S/S China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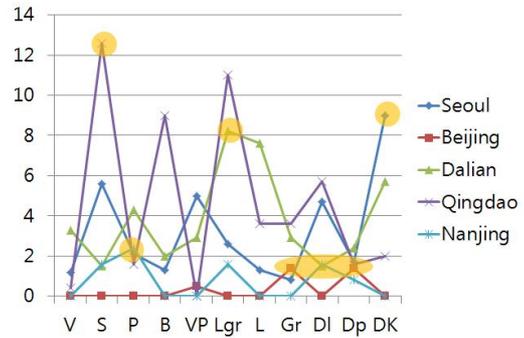


Figure 27. Local Tone Change in Bottom Items 2015 S/S China & Korea (%)

깊고 진한 톤을, 베이징과 다롄은 그레이 톤을, 난징은 옅은 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칭다오는 강한 S톤의 빈도가 유일하게 높아 차이점을 보였다(Fig. 27).

#### 4. 가방

액세서리 중 가방은 최소 206점(칭다오)에서 최대 259점(난징)까지 착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컬러에서는 서울(54.1%), 베이징(30.6%), 다롄(35.1%), 칭다오(32.5%), 난징(42.9%) 모두에서 Blk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Fig. 28).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에 대한 선호를 보였던 서울과 난징은 이번에도 Blk의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Mlt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2011년도와 2012년도 다롄과 서울에서 조사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Oh & Bae, 2013). 특히 의복에서는 V톤의 R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중국 여성들도 가방에 있어서는 Blk에 대한 착용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 톤에서는 서울 Dk(5%), 베이징 V(7.1%), 다롄 S(9.3%) 칭다오 S(8.8%), 난징 S(6.9%)의 결과를 보여 중국은 V톤이나 S톤과 같은 화려한 톤에 대한 빈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은 Dk톤처럼 어두운 톤에 대한 선호를 보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Fig.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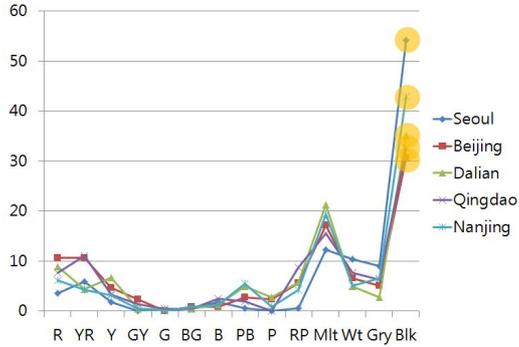


Figure 28. Local Color Change in Bags 2015 S/S China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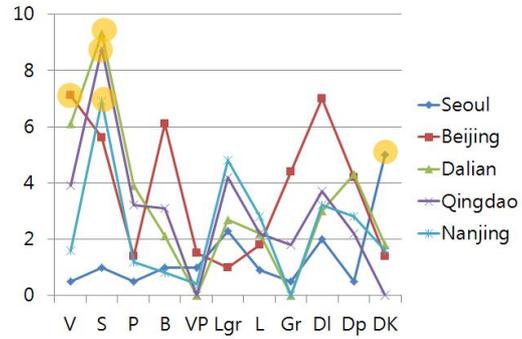


Figure 29. Local Tone Change in Bags 2015 S/S China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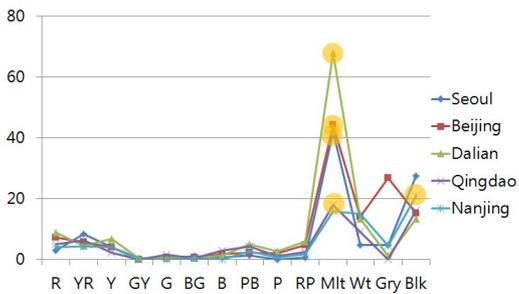


Figure 30. Local Color Change in Shoes 2015 S/S China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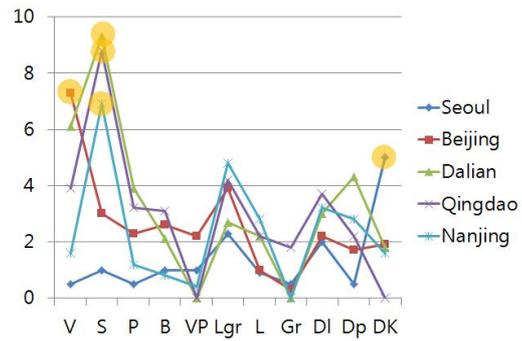


Figure 31. Local Color Change in Shoes 2015 S/S China & Korea (%)

## 5. 신발

액세서리 중 신발 컬러분석에서는 난징(20.9%)만 Blk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서울(41.9%), 베이징(44.2%), 다롄(67.8%), 칭다오(17.8%)는 Mlt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30). 두 번째로는 칭다오(16%), 서울(27.4%)은 Blk이 다롄은 Wt(13.3%)와 Blk(13.3%)이 동일한 빈도를 보였으며 베이징(26.7%)은 Gry가 난징은 Mlt(15.8%)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 난징을 제외한 4개 도시에서는 모노톤이, 난징은 복합컬러의 신발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컬러 톤에서는 서울 Dk(5%), 베이징 V(7.3%), 다롄 S(9.3%), 칭다오 S(8.8%), 난징 S(6.9%)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가방 톤 분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Fig. 31). 이로서 중국 여성들은 가방과 마찬가지로 신발에서도 V톤과 S톤처럼 강렬한 톤을 서울 여성은 Dk톤과 같은 어둡고 진한 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울과 중국 4개 도시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2015 S/S 의상 컬러에 대한 색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Clothing Color and Tone of Women's Street Fashion between Korea and China

		Seoul	Beijing	Dalian	Qingdao	Nanjing
color of street fashion		Blk>Wt>Gry>Mlt	Blk>Mlt>Wt>PB	Mlt>Blk>PB>R	Blk>Wt>Mlt>PB>	Blk>Wt>Mlt>Gry
tone of street fashion		Dk>Vp>Lgr	V>DI>S	V>DI>S	S>Lgr>B	Lgr>S>DI
one-piece dress	color	Mlt>Blk>B	Mlt>Gry>Blk	Mlt>Wt=Blk>PB	Mlt>Blk>Wt=PB	Blk>Mlt>Wt
	tone	Lgr>L=Gry=DI	V>S>Lgr	B>S=Dp	S>Dp>V	DI=Dp>P
top items	color	Wt>Blk>Mlt	Wt>Mlt>Blk	Wt>Mlt>Blk	Mlt>Wt>Blk	Wt>Blk>Mlt
	tone	Vp>Lgr>P=Dk	V>P>L=DI	V>B>P	Lgr>V>S=P=B	V>DI>B=Lgr
bottom items	color	Blk>PB>Wt	PB>Blk>Mlt	PB>Mlt=Blk>Wt	PB>Blk>Wt	Blk>Wt>Gry
	tone	Dk>S>Vp	Gry=Dp>Vp	Lgr>L>Dk	S>DI>L=Gr	P>S=Lgr=DI>Dp
bags	color	Blk>Mlt>Wt	Blk>Mlt>R=YR	Blk>Mlt>R	Blk>Mlt>YR	Blk>Mlt>Gry
	tone	Dk>Lgr>DI	V>B>S	S>V>Dp	S>Lgr>V	S>Lgr>DI
shoes	color	Mlt>Blk>YR	Mlt>Gry>Blk	Mlt>Blk=Wt>R	Mlt>Blk>Wt	Blk>Mlt>Wt
	tone	Dk>Lgr>DI	V>Lgr>S	S>V>Dp	S>Lgr>V	S>Lgr>DI

### V. 결론

현재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패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거대 국가 중국의 지역적

의복 색채 선호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의복 색채와 비교하는 것은 향후 중국 패션시장의 변화를 읽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015 여름 서울, 베이징, 다롄, 칭다오, 난징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여성복 색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전체 아이템을 대상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을 포함한 색채 분석에서는 다렌만이 Multi 컬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4개 도시는 모두 Black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양국에서 Black은 모든 아이템에 고르게 선호되고 있었으며 국가와 도시,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컬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White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이징, 다렌, 칭다오에서 PB 계열 컬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은 청바지의 높은 착용 빈도 때문으로 유추된다. 더불어 5개 도시 모두에서 Multi 컬러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단색 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컬러나 문양이 있는 의상에 대한 착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커다란 문양의 원피스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외의 유채색에서는 Red, Yellow Red, Yellow 계열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어 중국 특유의 전통적 색채감정이 시대와 계절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과 난징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이 강세를 보였으며, 다렌은 다른 지역보다 Multi와 Red의 빈도가 높아 중국의 4개 도시 중 가장 밝고 화려한 색채분포를 보였다.

전체 컬러 톤에서 서울과 난징은 각각 Dark톤과 Light Grayish톤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베이징, 다렌, 칭다오는 Vivid 톤과 Strong 톤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서울은 중국의 4개 도시보다 무채색의 빈도가 높고 어둡고 엷고 흐린 톤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난징은 중국의 3개 도시에 비해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고 흐리고 탁한 톤을 선호함으로써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난징이 중국의 3개 지역에 비해 서울과 근접한 위도대에 있어 비슷한 기후를 지님으로써 유사한 색채 선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중국의 4개 도시는 컬러의 종류보다는 톤에 있어 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 패션기업이 중국 진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같은 컬러일지라도 톤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시장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템 별 색채 비교 분석에서 원피스는 다양한

컬러의 문양으로 인하여 난징을 제외한 4개 도시에서 Multi 컬러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양국에서 여름 시즌 여성복의 핵심 아이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의는 5개 지역 모두 White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고 하의에서 서울과 난징은 Black이 베이징, 다렌, 칭다오는 Purple Blue 컬러 계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양국 모두 상의는 밝은 색을 하의는 어두운 색을 착용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하체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컬러 코디네이션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세서리 중 가방은 5개 도시 모두 Black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발은 Multi와 Black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방과 신발의 컬러 톤에 있어서 서울은 Dark 톤의 빈도가 높아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코디네이션되는 어두운 컬러의 액세서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의 4개 도시는 Vivid 톤과 Strong 톤에 대한 빈도가 높아 가방과 신발을 코디네이션의 포인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 여성복 색채에 대한 선호를 지역별로 분석한 세부적인 연구자료는 중국 패션시장에 진출한 한국 의류기업의 디자인과 마케팅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중국은 지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4개의 도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한국은 수도권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본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 한국의 지역범위를 넓혀 추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References

- Bae, S. (2011). An Analysis on the Color Trend of Street Fashion in Dalian, China(paper no. 2) -Focused on 2010 Winter, Compare with the Chinese Traditional Color Preference. *Journal of the Fashion Society of Business*, 15(5), 167-170.
- Baek, J., & Bae, S. (2008). An Analysis of 2006-2007 F/W Women`s Street Fashion in

- Dalian,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2), 67.
- China Apparel Market, 2014. (2015).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October 28, 2015, from <http://www.samsungdesign.net/ChinaInfo/IssueReport/content.asp?an=40074&glChk=&block=&page=&cnt=&keyword=%C7%CF%BC%B1+%B5%B5%BD%C3%B5%E9>
- China Map, *Naver*. Retrieved December 1, 2015, from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A4%91%EA%B5%AD%EC%A7%80%EB%8F%84](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A4%91%EA%B5%AD%EC%A7%80%EB%8F%84)
- Chinese 10 Castle GNP '\$10,000 Club' Entry. (2016, February 26). *Trade Korea*. Retrieved February 27, from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16025>
- Cho, C. (2003). *China City Tour*, Seoul: Seong Ha publication, 158.
- Gang, S. (2015, September 29). China Clothing Market Nes Trend “Fast Fashion”, *Newspim*. Retrieved fr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50929000071>
- Jung, J., & Bae, S. (2014). A Comparative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Women`s Street Fashion –Between Seoul and Beijing from 2012 S/S, 2014 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3), 587–589.
- Kim, E., & Bae, S. (2011). An Analysis on the Color Trend of Street Fashion in Dalian, China(paper no.1) –Focused on 2010 Summe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5(3), 54.
- Kim, K. (2015, May 10). China Qingdao Fashion Week, *AJU Business Daily*. Retrieved from <http://www.ajunews.com/view/20150507171529008>
- Lee, D. (2010, July 15). Most floating population points in Seoul ‘around Gangnam Kyobo Tow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6081&act=VIEW&boardId=6081](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6081&act=VIEW&boardId=6081)
- Lee, J. (2016, February 23). Consumption keyword of China is “Women, 九零后, 八零后. *Economic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323>
- Meet the Chinese Consumer of 2020. (2012).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October 28, 2015, from <http://www.samsungdesign.net/ChinaInfo/IssueReport/content.asp?an=18061&glChk=&block=&page=&cnt=&keyword=meet+the+chinese>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7). *Womenswear Industry 2007*. Seoul: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n Trade Commission. 47.
- Oh, H., & Bae, S. (2013). A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lor Trend of Women`s Street Fashion –Focused on Between Seoul and Dalian on 2011~2012 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2), 300.
- Park, K. (2004). An Analysis of Hanliu Phenomenon on the Chinese Street Fashion Sty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Human Ecology*, 13(6), 967–983.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1). *China Review: Advancing Strateg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in China*,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7.
- Women preferred style by region through Taobao On-line Shopping Mall. (2012).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October 28, 2015, from <http://www.samsungdesign.net/ChinaInfo/IndustryWatch/Style/content.asp?an=21014&glChk=&block=&page=&cnt=&keyword=%C5%B8%BF%C0%B9%D9%BF%C0+%BF%C2%B6%F3%C0%CE+%>

BC%EE%C7%CE  
Yoo, J., & Lee, L. (2014). A Comparative Study of One-piece Dress Design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 In China -Focused on Beijing, Shenzen in 2012 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6), 161-175.

九零后 Consumer Analysis. (2013). *Samsung Design Net*. Retrieved October 28, 2015, from <http://www.samsungdesign.net/ChinaInfo/IndustryWatch/Consumer/List.asp?an=23085&keyword=%C1%F6%BF%EC%B8%B5%C7%E3%BF%EC>

---

Received (January 21, 2016)

Revised (February 16, 2016; March 16, 2016)

Accepted (April 12, 2016)